

그 많던 광주·전남 10대 자원봉사자는 어디 갔을까

2018년 66만8650명서 올해 8만315명으로 5년 사이 88% '뚝' 봉사활동 대입점수 반영 안되며 매년 감소...현열 봉사도 급감

광주·전남 지역 10대 자원봉사자가 5년 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시 정책에서 봉사활동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86만 4071명에 달하던 광주·전남 자원봉사자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85만 5653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올해는 86만 4035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연령별로 전연령대에서 기존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광주지역 10대 자원봉사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다.

19세 미만 광주지역 자원봉사자 수는 2018년 66만 8650명이었고 2019년 65만 3929명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에는 21만 8865명으로 급감했고 2021년에는 19만 3467명, 지난해에는 13만

3119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만 315명에 그쳤다.

10대 자원봉사자수 급감에는 대학 입시 정책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9년 교육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2024년 대학입시부터 봉사활동 등의 모든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으로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던 학생들이 사라지자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급감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는 10대 현열자 수에도 영향을 끼쳤다. 광주·전남지역 현열에 참여한 고등학생은 2019

년 5만 6384명에서 2022년 2만 1789명으로 48.6%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현열에 참여한 고등학생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7% 감소한 1만 858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부터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와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에 소속돼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임은아(16·무등중)양은 "친구들에게 봉사활동을 권하면 봉사점수가 필요없는데 굳이 왜 봉사를 하느냐는 대답이 돌아온다"며 "센터 선생님들이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때마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지역 복지기관 관계자들도 대입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입을 모았다.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대입 정책 변경

이후 한 해 최대 20시간 참여해야 했던 학생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성장기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과 연대, 시민정신을 실천하는 경험을 얻는데, 갈수록 봉사에 나서는 청소년이 줄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회봉사 관련 교육의 필수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소년기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교외봉사를 의무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교육당국에서 사회봉사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관련 활동들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네일엑스포 2023 광주 네일엑스포가 28일 광주시 서구 차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네일 콘테스트에서 경연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나주서 백제시대 관(官) 인장 찍힌 기와 출토

30일 복암리서 현장설명회

나주 복암리유적에서 백제 시대 관청 등 중요 시설에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사진)가 출토됐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4월부터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유적에서 발굴 조사를 한 결과 백제 주거지 2기와 백제 인장기와의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출토된 기와에는 '관(官)'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인장이 찍혀 있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백제 인장기와의 마한 중심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백제 인장기와의 백제 고도인 공주, 부여나 정읍(옛 고부) 등 오방성(五方城·백제 지방 통치의 중심 지역) 지역이나 여수, 순천 등 신라 접경지역에서만 발굴됐다.

복암리 유적은 인근에 마한 사적인 나주 복암리 고분군과 정촌 고분 등이 분포해 있어 기원전 2세



기 이후 마한의 초기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적지로 꼽힌다. 또 '회진현관초(會津縣官草)'라는 글이 새겨진 고려 시대 명문기와도 출토돼 마한·백제·고려에 이르기까지 관청 등 중요 시설이 자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소는 30일 오후 1시 복암리유적 일대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발굴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설명회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

무안 노을길야영장 새 카라반 운영 못해 '속앓이'

바퀴 없이 고정식 추가설치했다 '건축법' 발목 4개월째 준공 승인 불발...단열재 등 보강해야

무안군이 '노을길 야영장' (낙지공원 캠핑장)에 새 카라반(캠핑카·사진)을 들여놓고 4개월째 운영을 못하는 등 속앓이를 하고 있다.

28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산 1억 8000여만원을 들여 무안군 망운면 노을길 야영장에 27㎡ 규모의 4인용 카라반 3대를 추가 설치했다.

애초 2021년 하반기 개장 당시 카라반 2대와 캠핑데크 10개를 갖췄으나 위낙 인기가 좋아 3대를 추가 설치했다. 이 야영장은 지난해 9만여명이 방문한 데 이어 올해도 5만여명이 찾는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다.

하지만, 추가 설치한 카라반을 4개월째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행정절차에 발목을 잡혔다.

기존 이동식 카라반이 아닌 고정식 카라반을 설치했더니, 카라반의 성격이 자동차에서 건축물로 바뀌어 행정절차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건축법에 맞춰 심의 및 허가 절차를 밟다 보니 수 개월 동안 준공 승인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무안군 측 설명이다.

바퀴가 달린 이동식 카라반은 자동차의 부속품으로 해석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바퀴를 빼고 고정식으로 설치하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건축 심의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더구나 무안군이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업종을 등록하기로 결정해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다.

숙박업소 기준에 맞춰 카라반에 단열재를 보강하고 소방설비 등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안군은 준공 인가를 받은 뒤 영업신고 절차도 남아있어 오픈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캠핑족들은 최근 노을길야영장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에 '새 카라반을 설치해놓고 왜 문을 열지 않느냐'는 항의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무안군이 10월 안으로 오픈하겠다는 공지를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항의성 글도 올리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카라반 설치를 관급공사로 추진하면서 준공일에 맞춰 카라반을 설치했으나, 기존 카라반과 인·허가 절차가 완전히 달라져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지못해 죄송하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 오픈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광주 서구, 횡단보도 금연 구역 지정한다

광주시 서구에서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금연 구역을 횡단보도까지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 서구의회는 28일 열린 제3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옥수(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와 그 대기장소로서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인도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9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금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횡단보도를 포함시켰으나, 광역자치단체는 금연구역 지정 시 자치구정장과 협의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

다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등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은 따르면 광주시 서구에는 현재 1만 110개소의 금연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 중 광주시가 지정한 횡단보도 금연구역은 한 곳도 없다.

김 의원은 "서구 내 횡단보도는 1200여개소가 넘는 만큼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금연구역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하고, 금연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수 목 장

또 다른 만남,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장묘 | 수목장·가족장 | 24시간 연중무휴 | ☎ 무료안치: 062-449-4446